

## 교회의 머리-이스라엘의 왕

예슈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중심 인물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계 1:8, 17),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히 13:8). 그 분께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메시아이신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개선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십니다:

**요 12:12-13 –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샤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의 선포는 일종의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지만,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사울)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예슈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게 됩니다:

**엡 1:20-22 – 그의 능력이 메시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나타납니다. 예슈아와 더불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슈아를 지도자로 하는 이 사람들로 구성된 몸을 통해 세상에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분의 통치기구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어떻게 이 지위를 받으셨습니까? 승천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권세보다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예슈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으며,

그 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분의 승천으로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릴 영적 권세를 받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통치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교회는 본질적으로 "승천 중심적"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받으셨습니까? 성육신(과 할례)으로 받으셨습니다.

### **마 1:1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아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약에 의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 다윗을 거쳐 예수아께 주어졌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으셨습니다(**눅 2:21**). 그 분께서는 신인류의 머리가 되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창 3:15, 고전 15:45**). 또한 다윗의 위에 앉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눅 1:32**). 창조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성육신으로 예수아께 이양되었고, 언약에 의한 아브라함의 권세가 할례로 예수아께 이양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더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진 반면, 이스라엘 왕국은 좀 더 "땅을 차지하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교회는 땅에서 하늘로 상향 이동적이고,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향 이동적입니다. 승천하신 예수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육신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두 직임은 평행적인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두 직함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슌 14:9, 엡 1:10**).

두 가지 역할 모두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교회의 머리로서의 지위는 전세계 에클레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언약을 요구합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지위는 그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예수아께서는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단의 사람들과 엮여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당신을 정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슈아께서는 저희 민족에게 당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십니다. 교회가 없는 예슈아가 없고, 이스라엘 없는 예슈아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슈아의 이중 직임은 이들 두 무리의 사람들 간의 언약적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화해와 협력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 안의 주요 예언적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강제적으로" 혹은 "운명적으로" 동반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졌고(롬 11:17), 이스라엘은 민족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롬 11:26).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은 이 둘 모두에 속함으로 이 둘의 가교로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겔 37:17-22, 엡 2:12-16).

## 기독교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하욘> 신문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CUFI)"의 최근 컨퍼런스를 두고 긴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독교의 후원을 기독교사 및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복잡한 성경 신학적 문제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과 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그리고 이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저희 민족에게 예슈아의 사랑이 잘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사를 보시려면:

[http://www.israelhayom.com/site/newsletter\\_article.php?id=5448](http://www.israelhayom.com/site/newsletter_article.php?id=5448)

## 메시아닉 군인들

<에디오투 예루살라임> 신문은 제 아들 중 한 명의 친구인 다비드(David R)의 간증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비드는 그의 믿음 때문에 수년 동안 시민권과 군복무자격을 거부당해왔습니다. 수년 동안의 법률 소송 끝에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에게 영주권과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그는 현재 IDF의 기갑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군복을 입은 메시아닉”이라는 제목의, 컬러 사진이 들어간 긍정적인 기사는 그의 믿음을 정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신약의 관점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모든 곳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다비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의 평강과 증거를 위해, 그리고 그와 더불어 IDF에서 충성스럽고도 희생적으로 복무 중인 다른 많은 메시아닉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